

# 함축 차원으로 본 합의성, 특이성, 및 일관성 정보간의 관계\*

나 은 영 · 차 재 호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입방체 귀인이론(Kelley, 1967)이 가정하는 합의성, 특이성 및 일관성 정보들이 서로 상관되어 있는 함축(implication)차원을 형성한다는 가설(세 정보들 중 하나 또는 두 종류의 정보만 받아도 사람들이 주어진 정보의 뜻과 함께 나머지 정보들의 뜻까지 추리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2개의 실험을 했다. 실험 I의 피험자들(N=60)의 하나의 귀인정보를, 그리고 실험 II의 피험자들(N=60)은 두 종류의 귀인정보를 각각 받고 (1) 합의성, 특이성, 및 일관성 함축이 각각 어느 방향으로 일어나는지, 그리고 (2) 가능한 함축내용 각각이 얼마나 그럴듯한지를 함축들간에 선택 또는 평정했다. 실험 I과 실험 II 모두에서 한 차원의 정보가 다른 차원의 정보까지 줄 수 있다는 가설을 지지했다. 뿐만 아니라 정보들간의 함축 관계가 아주 체계적임을 보이면서 車載浩와 羅恩曠(1986)이 제안한 T형 귀인모델의 수평축과 수직축의 존재도 강력히 지지했다. 또한 저일관성 정보가 명백히 주어지지않는 한 사람들이 대체로 고일관성을 가정한다는 가설이 추가적으로 지지되어, 사람들이 보통때는 T형 모델의 수평축만을 이용하여 실제귀인(행위자귀인 또는 자극귀인)을 많이하고 상황귀인은 삼가할 것이라는 시사를 얻었다.

이 연구는 立方體 歸因理論(Kelley, 1967)의 테두리 안에서 귀인정보들간의 상호 함축(implication)관계를 알아보려는 연구이다. 歸因(attribution)이란 어떤 행동의 원인을 지각 또는 추리하는 과정을 말한다(Kelley & Michela, 1980). Kelley(1967)는 “입방체이론(the cube theory)”이라 불리우는 그의 귀인이론에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고 귀인을 할 때 3가지의 정보를 토대로 삼는다고 가정했다. 이 3가지 귀인정보란 합의성(consensus), 특이성(distinctiveness), 및 일관성(consistency) 정보로서, 각각 행위자(person), 자극(stimulus)<sup>1)</sup>, 및 상황(circumstance)차원에서 나오는 정보이다. 즉, 합의성 정보는 어떤 행위자 한 사람만 그렇

게 행동하는지(低합의성),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런 행동을 하는지(高합의성)에 따라 그 수준이 정해지며, 특이성 정보는 어떤 행위자가 어느 특정 자극에만 그렇게 행동하는지(高특이성), 아니면 다른 자극들에도 모두 그런 행동을 하는지(低특이성)에 따라 그 수준이 정해진다. 일관성 정보는 어떻게 한 자극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든 그 행위자가 그런 행동을 하는지(高일관성), 아니면 그 사람이 어느 특정 상황에서만 그런 행동을 보이고 다른 상황에서는 그런 행동을 하지

1) Kelley(1967)는 원래 “자극”에 해당되는 말로 “entity”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나, 여기서는 McArthur(1972)의 표현을 따라 “stimulus”라고 했다. 본 논문에서는 “실체(entity)”라는 용어를 상황을 제외한 행위자와 자극을 통틀어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려고 한다.

\* 이 논문은 첫번째 저자의 1987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한 것임.

않는지(低일관성)에 따라 그 수준이 정해진다.

Kelley(1967)는 이 3개의 정보차원을 직교시켜서 얻어지는 입방체모양의 공간에 특정행동이나 그 행동 결과(outcome)가 어떤 형태(pattern)로 분포되는냐에 따라 그 행동이 행위자 때문에 일어났는지, 자극 때문에 일어났는지, 또는 상황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판단한다고 본다. 이처럼 반응들의 분포를 보고 그 행동의 원인을 판단하는 것은 共變原理(covariation principle)를 나타내는 것이다. Kelley(1967)는 이 원리를 “특정 효과는 그 효과가 있을 때는 있고 그 효과가 없을 때는 없는 조건에 귀인된다(The effect is attributed to that condition which is present when the effect is present and which is absent when the effect is absent)(p. 194)”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효과는 그것과 공변하는 요인에 귀인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高합의)”, “그 자극에만(高특이)”, “언제나(高일관)”, 그런 반응을 보인다면 그 반응(효과)이 행위자나 상황과는 공변하지 않고 그 특정 자극과 공변하는 것이므로 자극귀인이 일어나게 된다. McArthur(1972)는 합의성, 특이성, 및 일관성 정보의 수준을 각각 高(high)와 低(low)의 두 수준으로 조작하여 3정보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8가지 정보패턴( $2^3=8$ 가지) 각각에서 행위자, 자극, 또는 상황 중 어느 쪽으로 귀인이 많이 일어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Kelley(1967)의 이론을 검증했다. McArthur(1972)의 실험 상황은 3가지 정보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 완전정보 상황에서의 귀인 분석이었다.

그러나 합의성, 특이성 및 일관성 정보가 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들을 검토해 보면, 단일 정보(이들 3가지 정보 중 어느 하나)만으로도 귀인의 방향(행위자귀인, 자극귀인, 또는 상황귀인)이 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된다(예: Orvis, Cunningham, & Kelley, 1975; Hansen, 1980; 南基德, 1986). 예를 들어, 高합의성 정보 하나만 준 조건과 高합의성, 高특이성, 그리고 高일관성 정보를 모두 준 조건에서 거의 같은 정도로 자극귀인이 많이 나왔다(Orvis et al., 1975). 이와 같이 하나의 정보만으로도 3정보가 모두 있는 상황에 못지 않게 귀인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Kelley(1967)의 입방체이론의 틀 속에서 설명하려면, 합의성, 특이성 및 일관성 정보중 하나만 언어도 나머지 두 정보들의 뜻을 끌어낼 수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이러한 논리 하에 車載浩와 羅恩暎(1986)은 한 정보가 의도했던 정보 이외의 다른 종류의 정보도 함축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는 실험들을 했다. 이 연구는 일종의 탐색적 연구(exploratory study)로서, 각 정보의 함축 방향에 대한 예언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6가지 단일정보(高합의성, 低합의성, 高특이성, 低특이성, 高일관성, 低일관성 정보) 각각이 주어진 정보 이외의 두 가지 정보를 어느 정도 함축하는지를 알아 보았다. 이때 정보 함축 결과가 귀인 이전과 이후에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개의 실험을 실시해서, 한 실험에서는 함축 평정을 먼저 시킨 다음 귀인 평정치를 얻었고, 다른 실험에서는 귀인평정을 먼저 시킨 다음 함축 평정치를 얻었다. 그 결과 (1) 高합의성(“누구나 그렇게 행동한다”) 정보는 高특이성(“그 대상에만”)과 高일관성(“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함축했고, (2) 低특이성(“모든 대상에 대해 그런 행동을 한다”) 정보는 低합의성(“그 사람만”)과 高일관성 정보를 함축했으며, (3) 低일관성(“그 상황에서만 그런 행동을 한다”) 정보는 高특이성 정보를 함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귀인 후에는 대체로 일반화(generalization)<sup>2)</sup>를 삼가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귀인 이전과 이후의 정보 함축 평정 결과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와 비슷한 결과는 Orvis, Cunningham, 및 Kelley(1975)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비록 Orvis 등(1975)이 얻어낸 결과는 車載浩와 羅恩暎(1986)의 것과 유사하지만 근본적으로 두 연구의 출발점이 서로 다르다. 즉, Orvis 등(1975)은 한 정보가 다른 정보를 함축하는 매개개념으로 스키마(schema)를 가정한다. 본 연구는 그런 스키마를 가정하지 않는다. 가정하는 스키마는 (1) HHH(高합의+高특이+高일관) 정보조합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자극귀인 스키마, (2) LLH(低합의+低특이+高일관) 정보조합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자귀인 스키마, 그리고 (3) LHL(低합의+高특이+低일관) 정보조합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상황귀인 스키마이다. 한 스키마속의 어느 한 정보는 불완전 정보(incomplete information)가 되며 나머지 정보를 함축한다고 본다. 이들이 말하는 스키마는 각각 과거 연구

2) “다른 사람들도 그런 행동을 할 것이다”, “다른 자극들에게도 그런 행동을 할 것이다”, 또는 “그전에도 늘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다”와 같은 추측을 말한다.

(McArthur, 1972 등)에서 특정한 귀인을 잘 내는 정보조합으로 밝혀진 것들이고 어떤 이론에서 도출한 것은 아니다.

Orvis 등(1975)은 사람들이 합의성, 특이성, 및 일관성 정보 중 하나 또는 둘만이 갖추어져 있는 불완전정보 상황을 만나면 그 불완전정보 패턴과 유사한 완전정보 패턴의 스키마가 떠올라 빠진 정보를 채우면서 귀인을 하게 된다고 본다. 예를 들어, 불완전정보 패턴이 H-H(가운데 자리의 특이성 정보가 비어 있고, 첫째 자리의 합의성 정보 수준과 셋째 자리의 일관성 정보 수준이 모두 H(high)인 패턴)일 경우, 위에서 말한 3가지 스키마 중 첫째 자리와 셋째 자리에 H가 있는 스키마는 HHH가 있으므로 가운데 자리의 특이성 정보는 H(2개 스키마에서 H이고 1개 스키마에서는 L인데 H하나와 L 하나는 상쇄된다고 전제하면 H가 남는다)로 완성된다. 그런데 HHH는 자극귀인을 유발하는 것이므로 H-H정보에서는 자극귀인이 예언된다는 것이다.

車載浩와 羅恩暎(1986)은 처음부터 스키마를 가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Orvis 등(1975)과 달리 단일정보만으로 귀인이 일어나는 것이 더 일상적(common)이라고 보고 입방체 이론으로 일상의 귀인을 설명하려면 단일정보 안에 다른 정보들의 뜻이 들어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다. 이들의 연구결과(車·羅, 1986)는 하나의 정보가 나머지 두 정보들의 뜻도 함축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사실은 Kelley(1967)의 3차원 입방체에서 얻을 수 있는 3가지 정보(합의성 정보, 특이성 정보, 그리고 일관성 정보)들이 Kelley(1967)와 McArthur(1972)가 암묵적으로 가정하는 것처럼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상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Kelley의 서로 독립적인 “정보(information)” 차원들로 구성된 입방체 공간과는 별도로, 서로 상관되어 있는 “함축(implication)” 차원들로 정의되어 있는 공간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새로운 공간(함축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에서는 한 정보차원이 다른 정보차원과 상관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3차원 보다는 차원 수가 적은 공간일 수가 있고 또는 3차원이라도 Kelley(1967)가 규정한 차원과는 성질이 다른 차원들로 구성될 수 있다. Kelley가 상정한 정보공간과 필자들이 상정하는 함축공간은 서로 일정한 관계를 지닐 것이다. 이런 관계를 탐색하는 일 자체도 재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선 여기서 두 공간

의 차이에 대해 한가지 언급해 둘 것은 Kelley의 정보공간이 논리적 공간인데 비해 함축공간은 심리적인 공간이라는 점이다.

Kelley가 비록 명시적으로는 행위자, 자극 및 상황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합의성 정보, 특이성 정보, 그리고 일관성 정보 차원이 서로 독립적이라고 가정하지 않았다 해도, 이 3차원을 직교시켜서 얻은 입방체 공간 속의 반응 분포에 초점을 두고 논리적 모델을 전개시켰다는 점은 그가 말하는 3개의 정보차원이 서로 독립적임을 가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McArthur(1972)가 Kelley(1967)의 이론을 검증할 때 한 차원의 정보가 다른 차원의 정보까지 줄 수 있다는 생각은 미치지 못하고 3종류의 정보를 모두 주고 완전정보 상황에서 귀인을 분석했다는 점도 Kelley와 McArthur가 합의성 특이성 및 일관성 차원의 정보들이 서로 독립적이라고 가정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기본과정(assumption)은 합의성, 특이성, 및 일관성 정보가 서로 상관되어 있는 함축(implication) 차원들을 이룬다는 것이다. 가설은(hypothesis)은 합의성, 특이성, 및 일관성 정보는 각각 나머지 정보들을 함축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언은 피험자에게 위 3종의 정보중 하나만 주어도 나머지 정보의 함축내용을 추측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함축(implication)차원”이란 말은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정보(information)차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피험자들이 하나 또는 두 개의 정보만 받고도 합의성, 특이성, 및 일관성의 3차원을 주관적으로 추리해낸 정보의 차원이다. 본 연구에서는 “함축”이란 용어를 Kelley가 말하는 세 가지 귀인정보(합의성, 특이성, 및 일관성 정보)에만 한정시켜, 이 세 정보 중 어떤 것을 가지고 나머지 정보를 피험자들이 추측해내는 것으로 정의한다.

본 논문에서는 2개의 관련된 실험을 보고한다. 실험 I에서는 단일정보(高 또는 低 수준의 합의성, 특이성 및 일관성 정보중 어느 하나)만을 제시했으며, 실험 II에서는 2개의 정보(합의성, 특이성, 및 일관성 정보 중 2종류)의 조합만을 제시했다. 종속변인은 실험 I과 실험 II 모두에서 주어진 정보에 대해 (1) 합의성, 특이성, 그리고 일관성 차원 각각에 대해 高(high) 또는 低(low)수준의 함축 내용 중 어느 쪽이 더 그럴듯한지 선택하는 것과 (2) 高 또는 低 수준의 합의성, 특이성, 그

리고 일관성 함축 내용들 각각이 얼마나 그럴듯한지를 7점척도 위에 평정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가 필자들의 이전 연구(車·羅, 1986)와 다른 점은 주어진 정보가 원래 의도했던 뜻을 피험자들이 어느 정도 수용했는지(예: 합의성 정보를 받았으면 그 자체의 함축)를 알아 보았다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주어진 정보 자체에 대한 함축은 묻지 않았다. 예컨대, 합의성 정보를 받은 경우 특이성과 일관성 함축은 물었지만 합의성 함축은 묻지 않았었다. 또 이전의 연구와 달랐던 점은 본 연구에서는 함축 평정척도로 兩極척도(bipolar scale)를 쓰지 않고 單極척도(unipolar scale)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즉, 선행연구에서는 예를 들어 합의성의 함축을 묻는 경우 “다른 사람들도 그런 행동을 할 것이다.”라는 高합의성 쪽의 문장에 대해 9점척도 점수를 받아냈는데, 이때 5점을 중심으로 하여 “그럴” 가능성이 더 많으면 5보다 큰 숫자쪽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으면 5보다 작은 숫자 쪽에 표시하도록 했다. 그러므로 이때는 5보다 작은 척도점수가 자연히 低합의성의 뜻(“다른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을 함축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합의성의 함축을 물을 때 高합의성 함축 내용(“다른 사람들도 그런 행동을 할 것이다”)과 低합의성 함축 내용(“그 이외에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따로 제시하여 각각에 대한 개연성을 “전혀 그럴듯하지 않다(1점)”부터 “아주 그럴듯하다(7점)”를 끝점으로 하는 단극척도에 평정시켰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와 달리 “歸因평정”은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불완전 정보로부터의 “귀인”을 다른 연구들이 많이 있고(예: 車載浩·羅恩曠, 1986; 南基德, 1986; Orvis, Cunningham, & Kelley, 1975; Hansen, 1980), 귀인 이전과 이후의 함축 평정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있기 때문이다(車·羅 1986). 그러므로 이번 연구는 귀인 연구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전통적인 귀인연구들과는 달리 사람들이 주어진 귀인정보들로부터 다른 정보들을 끌어내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 분야의 지식구조(knowledge structure) 연구와도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다.

원래 계획했던 것은 아니나 본 연구는 車載浩와 羅恩曠(1986)이 제시한 T字型 歸因空間모델을 검증할 기회도 제공한다. 이 모델은 귀인이 긍정적인 정보에 의해

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귀인을 부정하는 정보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사실을 토대로 한 것으로, 수평축은 행위자귀인과 자극귀인을 양극으로 하는 一方向軸이다(그림 5참조). 이 모델의 기본가정은 (1) 행위자귀인과 자극귀인은 반대 관계에 있으며, (2) 행위자 귀인과 자극귀인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高일관성(상황귀인이 안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低일관성일 때는 상황귀인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므로 행위자귀인도 자극귀인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 본 연구에서 얻어지는 귀인정보들간의 상호 함축 관계가 이 T형 귀인 모델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실험 I

### 방 법

#### 피험자

실험 I의 피험자는 서울대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교양영어 수강생 60명이었다. 결과 분석에서 제외된 피험자는 없었다.

#### 질문지

한 피험자가 모두 12개의 행동기술문을 받도록 질문지가 구성되었다. 이 행동기술문들을 선행연구(車載浩·羅恩曠, 1986; 南基德, 1986)에서 사용했던 것과 같은 것으로 McArthur(1972)가 분류한 4가지 동사 범주(情動, 成就, 意見, 行爲) 각각에서 3개씩(4×3=12) 선정하여 만든 것이다. 예를 들면, 정동을 나타내는 행동기술문은 “은희는 그 개를 보고 질겁을 했다.” 성취를 나타내는 행동기술문은 “정호는 그 문장을 틀리게 번역했다.” 의견을 나타내는 행동기술문은 “연호는 그 건물을 보고 굉장히 높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행위를 나타내는 행동기술문은 “창수는 국산품애용 가두캠페인을 벌였다”와 같은 문장들이었다.

피험자들이 받은 최종적인 질문지는 모두 14장으로 된 21cm×29.7cm 크기의 책자였다. 질문지의 맨 앞장에는 지시문이, 그리고 둘째장에는 연습문항이 인쇄되어 있었고, 세번째 장부터 위에서 말한 12개의 문항(행동기술문)들이 매 장마다 하나씩 인쇄되어 있었다. 질문지의 각 페이지마다 맨 위의 행동기술문 하나와 부수

정보 하나(高합의성, 低합의성, 高특이성, 低특이성, 高일관성, 및 低일관성 정보중 하나—이것이 독립변인에 해당한다)가 제시되었고, 그 아래 두 개의 종속변인들, 즉 (1) 합의성, 특이성, 및 일관성 차원 각각에서의 高低수준 함축간 선택, (2) 개별 함축에 대한 개연성 평정에 해당하는 질문과 척도들이 제시되었다.

**독립변인**

독립변인은 행동기술문 다음에 첨가되는 부수정보(실험 I에서는 단일정보)의 형태로 조작했다. 예를 들어, 정동 범주에 속하는 1번 문항(“은혜는 그 개를 보고 질겁을 했다”)과 짝지워질 수 있는 6가지의 단일정보(합의성, 특이성, 및 일관성 정보 각각의 高수준과 低수준에 해당되는 6가지 정보)는 다음과 같다.

**합의성 정보**

- 高 : 그 개를 보면 누구나 질겁을 한다.
- 低 : 그 개를 보고 질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특이성 정보**

- 高 : 은혜는 다른 개들을 보고는 질겁을 하지 않는다.
- 低 : 은혜는 다른 개들을 보고도 모두 질겁을 한다.

**일관성 정보**

- 高 : 은혜는 과거에도 그 개를 보면 늘 질겁을 했다.
- 低 : 은혜는 과거에도 그 개를 보고 질겁을 한 적이 없다.

6가지 단일정보 조건들 중 하나씩을 12개의 행동기술문과 짝지운 방식은 2회 반복되는 6×6 Latin Square를 이용했다. 즉, 먼저 1번부터 6번까지의 행동기술문에 6가지 정보조건(a, b, c, d, e, f로 표시함)을 차례로 짝지운 다음 7번부터 12번까지의 행동 기술문에도 같은 방식으로 여섯 정보를 짝지웠다. 이렇게 짝지워진 12개의 문항이 하나의 질문지 양식(양식 1)을 형성했다. 양식 2는 1번~6번, 7번~12번의 행동기술문에 f, a, b, c, d, e의 순으로 정보를 짝지운 형태가 되며, 양식3은 e, f, a, b, c, d의 순으로 짝지운 형태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모두 6가지의 질문지 양식(format)을 만든 다음, 각 양식속에서 12문항의 순서 배열을 5가지로 변화시켰다. 이때 같은 정보조건끼리, 또는 정반대되는 정보조건(예: 高합의성 정보와 低합의성 정보)끼리 인접하지 않도록 하면서 난수표를 사용하여 5가지의 문항제시순서를 정

했다 이렇게 해서 모두 30종의 다른 질문지(6양식×5순서=30종)가 만들어졌고, 두 명씩의 피험자가 같은 종류의 질문지를 받도록 했다.

**종속변인**

이 실험에서 측정된 종속변인은 2가지였다.

(1) 高低함축간 선택 : 합의성 차원, 특이성 차원, 그리고 일관성 차원 각각에 대해 高(High) 또는 低(low) 수준의 함축 내용 중 어느 쪽이 더 그럴듯한지를 선택하게 했다. 예를 들어, 1번 문항(“은혜는 그 개를 보고 질겁을 했다”)에 대한 첫번째 종속변인 측정 질문에서 합의성의 함축 방향을 묻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위의 사실을 알면 여러가지 짐작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항목마다 적혀 있는 두 가지씩의 짐작들 중에서 어떤 짐작이 더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괄호 안에 기호(가) 또는 (나)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1)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짐작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그럴듯하다고 생각됩니까? …………… ( )
    - (가) 은혜 이외의 다른 사람들도 그 개를 보면 질겁을 할 것이다.
    - (나) 은혜 이외에는 그 개를 보고 질겁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여기서 만약 (가)를 택했다면 高합의성을 함축하는 것이고 (나)를 택했다면 低합의성을 함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개별 함축에 대한 개연성 평정 : 高수준과 低수준의 합의성, 특이성, 그리고 일관성 함축 내용 6가지가 각각 어느 정도 그럴듯하게 생각되는지를 7점척도 위에 평정시켰다. 즉, 첫번째 종속변인에서 선택지로 주었던 6개의 함축내용들 각각에 대한 함축정도를 평정시켰다. 이때 정반대되는 함축(예: 高합의성 함축과 低합의성 함축)의 정도를 묻는 척도들끼리는 서로 인접하지 않도록 해서 바로 앞의 반응이 직접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을 최소화시켰다. 1번 문항에 대한 두번째 종속변인 측정 질문에서 합의성 차원에 해당하는 질문을 예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맨 위에 적혀 있는 문장들(행동기술문+부수정보)에



(b)		문항번호 7-12(의견/행위)의 자료							
주어진 정보		H/L 수준				합측간의 선택빈도		완성된	
합의	특이	일관	H합의	L합의	L특이	H특이	H일관	L일관	합측형태
H	-	-	57(.95)	> 3(.05)***	31(.52)	= 29(.48)	52(.87)	> 8(.13)***	H-H
L	-	-	13(.22)	< 47(.78)***	48(.80)	> 12(.20)***	47(.78)	> 13(.22)***	L-LH
-	H	-	46(.77)	> 14(.23)***	8(.13)	< 52(.87)***	41(.68)	> 19(.32)**	HHH
-	L	-	33(.55)	= 27(.45)	57(.95)	> 3(.55)***	49(.82)	> 11(.18)	-LH
-	-	H	47(.78)	> 13(.22)***	38(.63)	> 25(.42)	55(.92)	> 5(.08)****	H-LH
-	-	L	37(.62)	= 23(.38)	35(.58)	= 25(.42)	13(.22)	< 47(.78)****	H-H
평균 빈도			38.83	21.17	29.83	30.17	42.83	17.17	
			(.65)	(.35)	(.60)	(.40)	(.71)	(.29)	

H=high, L=low. a 밑줄 친 정보는 주어진 정보. b 수치는 선택빈도. 괄호안의 수치는 선택 백분율. 부등호/등호 표시의 선택의 방향을 나타냄. \* $p < .05$ , \*\* $p < .01$ , \*\*\* $p < .001$ . 양방 검증

결과 참조)은 모두 정확한 방향(예: 高합의성 정보를 받았으면 低합의합측보다 高합의합측을 많이 선택)으로 향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피험자들이 주어진 정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斜軸이 아닌 칸에 제시된 자료는 주어지지 않은 정보들에 대한 지각, 즉 합측을 나타내는데, 위표와 아래표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모두 12개의 비교 중 4개 비교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으나 이 다른 결과라는 것은 한 예만 빼고는 위표(정동과 성취를 다룬 자료)에서 관찰된 유의한 합측차가 아래표(의견과 행위를 다룬 자료)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즉, 두 표간의 차이에는 완전히 반대되는 합측관계 때문에 생긴 것은 한 예도 없

었다. 따라서 합측 자료는 위표와 아래표가 상당한 일치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위표와 아래표에 나타난 합측관계가 그림1의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나와 있다. 괄호 안에 쓰여 있는 알파벳(P,  $\bar{P}$ , S,  $\bar{S}$ , C,  $\bar{C}$ )은 Kelley (1967)의 共變原理(covariation principle)에 근거할 때 각 정보가 지시(指示)하는 귀인의 방향을 나타낸다.

그림1의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합측관계는 高특이정보에서 高일관정보로의 합측관계를 제외한 오른쪽 그림과 같다. 즉, (1) 高합의성("모든 사람이") 정보와 高일관성("그전에도 늘") 정보가 상호 합측을 하며, (2) 低특이성("모든 자극에") 정보와 高일관성 정보가 상호 합측을, (3) 高특이성("그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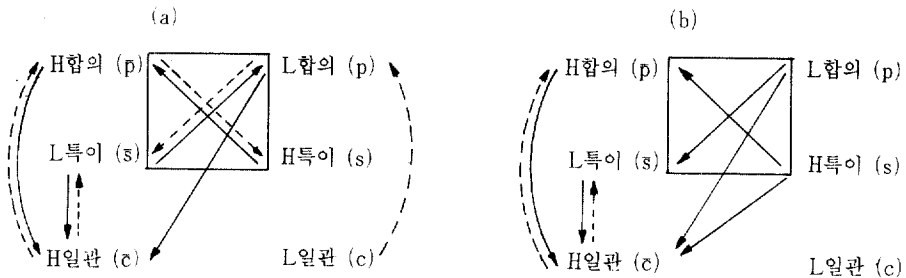


그림 1. 高低수준 합측간 선택 빈도로 본 "단일정보→합측" 관계의 도식.

(a) 문항번호 1-6(정동/성취), (b) 문항번호 7-12(의견/행위).

\* H=high, L=low, P=행위자(Person)귀인,  $\bar{P}$ =행위자 귀인의 부정; S=자극(Stimulus)귀인,  $\bar{S}$ =자극귀인의 부정; C=상황(Circumstance)귀인,  $\bar{C}$ =상황귀인의 부정. 점선은  $p < .05$  수준에서만 유의한 합측관계; 연속선은  $p < .01$  수준 이상으로 유의한 합측관계.

극에만”) 정보가 高합의성 정보의 함축을, 그리고 (4) 低합의성(“그 사람만”) 정보가 低특이성 함축과 高일관성 함축을 함이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분명히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합의성, 특이성, 및 일관성 정보 중 하나만으로도 주어진 정보 자체의 의미와 함께 나머지 정보들의 뜻까지 추리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결과는 Kelley의 이론에서는 이를 세 가지 귀인 정보들이 서로 독립적인 차원을 형성하지만 함축관계에서는 독립적이지 아닐 수도 있다는 명제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합의성, 특이성, 및 일관성 정보들이 다른 정보들을 함축하는 방식이 아주 체계적이 드러났다. 표1과 그림1의 함축 결과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1) 低일관성 정보와 高특이성 정보 이외의 모든 단일정보가 高일관성 정보를 함축하며, (2) 低일관성 정보는 다른 정보를 함축하는 일도 거의 없고 다른 정보에 의해 함축 받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3) 高특이성 정보(자극 귀인을 지시하는 정보)는 高합의성 정보(행위자 귀인의 부정을 지시하는 정보)를 함축하며, 低합의성 정보(행위자귀인을 지시하는 정보)는 低특이성정보(자극귀인의 부정을 지시하는 정보)를 함축하는데, 高특이성 정보(자극귀인 지시)와 低합의정보(행위자귀인 지시) 간, 그리고 高합의정보(행위자귀인의 부정 지시)와 低특이정보(자극귀인의 부정 지시)간의 함축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런 특이성과 합의성 간의 함축관계는 그림1의 사각형 안에 X자 모양의 교차함축관계로 나타나는데(이것을 앞으로 “X자형 함축교차”라고 부를 것

임), 이 교차 형태는 특이성과 합의성 정보 차원이 함축 공간에서 상관된 차원을 형성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X자형 함축교차가 T형 귀인공간 모델에 극히 중요하다는 사실은 본 연구의 전체논의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언급될 것이다.

### 개별함축의 정도 평정치

개개 함축의 정도 평정(單極척도에서) 결과에 미친 독립변인(단일정보 조건)의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6×6(질문지 양식×6개의 함축 척도) 변량 분석과 5×6(문항제시 순서×6개의 함축 척도) 변량 분석을 해 본 결과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의의있게 나오지 않았다(질문지 양식 :  $F(20, 2130) < 1$ ). 그러므로 질문지 양식이나 문항 제시 순서가 이 종속변인(6개의 함축 척도에서의 함축정도 평정치)에 체계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어 각 단일정보 조건별로 3개의 함축 차원(합의성, 특이성, 및 일관성 함축) 각각에 대해 高수준 함축척도와 低수준 함축척도 상에서의 평정치 중 어느 쪽이 더 높게 나왔는지를 분석한 것이 표2에 나와 있다. 정보 조건별로 각 정보의 高수준 함축 정도 평정치 평균과 低수준 함축 정도 평정치 평균 간의 차이를 검증했다. 여기서는 앞의 빈도 자료에서와 달리, 같은 정보조건과 짝지워진 두 문항씩에 대한 가가 피험자들의 척도점수들을 평균하여 분석했다.

표2의 함축 정도 분석 결과는 본 실험의 첫번째 종속 변인이었던 高低수준 함축간 선택 빈도 결과(표1)와 거

표 2. 단일정보에 대한 합의성, 특이성 및 일관성의 高低함축 강도 평정치 치의 t검증 결과

주어진 정보			함축 정도						완성된
합의	특이	일관	H 합의	L 합의	L 특이	H 특이	H 일관	L 일관	함축형태 <sup>a</sup>
H	-	-	5.93 <sup>b</sup>	> 2.16***	3.88	= 3.55	5.27	> 2.50***	H-H
L	-	-	2.42	< 5.38***	4.86	> 2.83***	4.68	> 2.99***	L-LH
-	H	-	5.12	> 2.78***	2.27	< 5.45***	4.60	> 3.10***	H-HH
-	L	-	3.69	= 3.87	6.03	> 1.91***	5.17	> 2.33***	-LH
-	-	H	4.38	> 3.06***	4.35	> 3.24***	6.02	> 1.61***	H-LH
-	-	L	3.93	= 3.64	3.72	= 3.75	2.23	< 5.45***	--L
평	균		4.24	3.48	4.18	3.46	4.66	3.00	

H=high, L=low, <sup>a</sup>발출된 정보는 주어진 정보. <sup>b</sup>점수는 單極척도(7점척도)에서의 함축정도 평정치 평균임. 높은 수치일수록 함축 정도가 높은 것을 뜻함. 부등호/등호표시는 H/L수준함축중 어느쪽이 강한지를 나타냄.

\*\*\* $p < .001$ . 양방 검증.



의 일치한다. 표2의 왼쪽 위에서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斜軸에 나온 결과는 주어진 정보 자체에 대한 지각이 정확하게 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표2의 斜軸 밖에 나와 있는 사각틀에 친 부분의 함축관계를 “주어진 정보→함축 정보”관계의 도식으로 그린 것이 그림2에 나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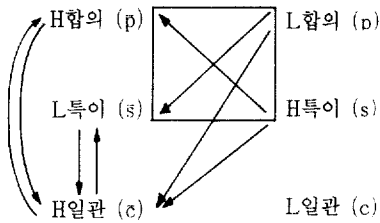


그림 2. 高수준 함축 정도 및 低수준 함축 정도 평정간 차이로 본 “정보→함축”관계의 도식.

여기서 함축 방향은 한 정보차원 안에서 高수준 함축과 低수준 함축의 평정 중 한 쪽이 유의하게 높으면 그쪽으로 함축이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종속변인에서는 高수준과 低수준의 함축이 같은 정도로 나오면 함축이 없는 것으로 취급했다. 그림2는 그림1의 오른쪽 그림과 완전히 일치하므로, 구체적인 결과들을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도 그림1에서

와 같이 함의성 정보와 특이성 정보 간에 Z자형 함축교차 형태가 드러나 이 두 정보차원이 상관된 함축관계에 있음을 보이고 있다.

함축의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아 보는 방법으로 주어진 정보자체에 대한 “함축”강도 평정과 다른 정보에 대한 진정한 함축강도 평정(예: 합의정보에 대한 특이정보의 함축)의 점수 크기를 비교해 본 것이 표3에 나와 있다.

이에 의하면 주어진 低합의정보와 高특이정보는 각각 低특이와 高합의를 자체 “함축”강도와 같은 강도로 함축했음을 보여 준다. 이 결과는 어떤 함축은 마치 특정한 정보를 실제론 것만큼이나 강하게 사람의 머리에 떠오른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주어진 합의성 정보나 특이성 정보는 高일관정보를 함축하고, 주어진 高일관정보는 高합의와 低특이정보를 함축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미 그림 1과 그림 2에도 나온 것이므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

## 실험 II

실험 II를 실시한 목적은 합의성 정보, 특이성 정보, 및 일관성 정보 중 2종류의 정보 조합을 받을 때 합의

표 3. 단일정보가 갖는 함축 정보들의 강도 순서 배열 (Duncan's Multiple Range Test의 결과:  $\alpha=.01$ )

주어진 정보			함축 정보들의 강도에 따른 배열					
합의	특이	일관						
H	-	-	H 합의 > 5.93	H 일관 > 5.27	L 특이 = 3.88	H 특이 > 3.55	L 일관 = 2.50	L 합의 = 2.16
L	-	-	L 합의 = 5.38	L 특이 = 4.86	H 일관 > 4.68	L 일관 = 2.99	H 특이 = 2.83	H 합의 = 2.42
-	H	-	H 특이 = 5.45	H 합의 = 5.12	H 일관 > 4.60	L 일관 = 3.10	L 합의 = 2.78	L 특이 = 2.27
-	L	-	L 특이 > 6.03	H 일관 > 5.17	L 합의 = 3.87	H 합의 > 3.69	L 일관 = 2.33	H 특이 = 1.91
-	-	H	H 일관 > 6.02	H 합의 = 4.38	L 특이 > 4.35	H 특이 = 3.24	L 합의 > 3.06	L 일관 = 1.61
-	-	L	L 일관 > 5.45	H 합의 = 3.93	H 특이 = 3.75	L 특이 = 3.72	L 합의 > 3.64	H 일관 = 2.23

註. H=high, L=low.

높은 수치일수록 함축 강도가 강함(7 점 척도 점수).  
밑줄로 연결되어 있는 함축들 사이에는 유의있는 강도 차이가 없음.

성, 특이성, 및 일관성 함축 차원이 각각 어느 방향(高 또는 低)으로 추리되며, 각 함축 정보들의 강도는 단일 정보 때에 비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서였다. 2정보조합 조건에서 나오는 함축들을 분석함으로써 단일정보로부터의 함축, 연구 결과(실험 I)에서 내린 결론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고, 함의성, 특이성 및 일관성 정보들간의 상호 함축 관계를 더욱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 방 법

### 피험자

실험 II에 사용된 피험자도 실험 I과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교양영어 수강생 60명이었으나, 실험 I의 피험자들과는 다른(독립적인) 집단이었다. 실험 II에서도 역시 결과 분석에서 제외된 피험자는 없었다.

### 질문지 및 절차

실험 II에서는 주어지는 정보의 조건(독립변인)이 단일정보가 아닌 2정보 조합이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모든 절차가 실험 I과 같았다. 여기서 조작한 독립변인은 실험 I에서 사용했던 단일정보 조건들(高합의성, 低합의성, 高특이성, 低특이성, 高일관성, 低일관성 정보) 중 서로 다른 차원에 속하는 2정보 조건들의 조합 12개(합의성, 특이성 및 일관성 정보의 순으로 HH-, HL-, LH-, LL-, H-H, H-L, L-H, -HH, -HL, -LH, -LL<sup>3)</sup> 조건)였다. 예를 들어 1번 문항(은희는 그 개를 보고 질겁을 했다)에 대한 HH-(高합의성 정보와 高특이성 정보의 조합)조건의 주어진 정보의 예는 다음과 같다.

그 개를 보면 누구나 질겁을 한다.

은희는 다른 개들을 보고는 질겁을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2종류 정보들의 조합 조건 12개를 12개의 문항(행동기술문)과 짝지운 방식은 12×12 Latin Square를 이용했다. 즉, 12개의 2정보조합 조건이 12문항과 한번씩 골고루 짝지워지도록 하여 12가지의 질문지 양식을 만들었다. 그 다음, 각 양식(format) 속에서

3) H=high. L=low. "-"=해당 정보를 주지 않음.

12문항의 순서 배열을 5가지로 변화시켰다. 이 5가지의 문항제시 순서는 실험 I에서 채택했던 순서를 그대로 이용했다. 이렇게 해서 모두 60종의 다른 질문지(12양식×5순서=60종)가 만들어졌고, 한 피험자가 한 종류의 질문지를 받도록 하여 모두 60명의 피험자가 응답하도록 했다.

실험 II의 종속변인은 실험 I과 마찬가지로 (1) 함의성 차원, 특이성 차원, 그리고 일관성 차원 각각에 대해 高(high) 또는 低(low)수준의 함축 내용 중 어느 쪽이 더 그럴듯한지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2) 高수준과 低수준의 함의성, 특이성, 및 일관성의 함축 내용 6가지가 각각 어느 정도 그럴듯하게 생각되는지를(즉, 함축 정도를) 7점 척도 위에 평정하는 것이었다.

## 결과 및 논의

### 高低수준 함축간 선택빈도

합의성, 특이성 그리고 일관성 함축차원 각각에 대해 12×2(질문지 양식×각 함축 차원의 高低수준)  $\chi^2$ 검증과 5×2(문항 제시 순서×각 함축 차원의 高低수준)  $\chi^2$ 검증을 해 본 결과, 모두 유의있는 값이 나오지 않았다( $ps>.50$ ). 그러므로 질문지 양식과 문항 제시 순서가 종속변인1(高低함축간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 독립변인으로 조작했던 2정보조합 조건별로 함의성, 특이성 및 일관성 함축 차원의 高低수준 함축간 선택 빈도를 분석했다. 이 선택 빈도 자료와 반대함축들(예: 高합의성 함축과 低합의성 함축)간의 선택 빈도 차이에 대한  $\chi^2$ 검증 결과를 표 4에 제시했다.

표 4의 결과에서 먼저 확인되는 점은 2정보조합 조건 12개 모두에서 2개씩의 주어진 정보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를 피험자들이 옳게 지각했다는 점이다(L-L조건의 함의성 함축 방향에서는  $p<.01$ , 나머지는 모두  $ps<.001$ ). 그러므로 실험 II에서도 독립변인 조작이 잘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표 4에서 주어진 정보 이외의 나머지 한 정보차원에 대한 함축 방향을 뚜렷하게 보인 정보조합들을 살펴 보면, (1) 일관성 함축에서는 低합의성 정보("그 사람만")와 高특이성 정보("그 자극에만")의 조합만을 제외하고는 함의성 정보와 특이성 정보의 조합이 모두 高일고나성(그전에도 늘) 쪽의 함축을 보였고 [HH-조건:  $\chi^2$

표 4. 2정보조합 조건별 합의성, 특이성 및 일관성 차원의 高低수준 함축간 선택 빈도와 각 반대함축들간의 선택빈도 차이에 대한  $\chi^2$ 검증 결과

주어진 정보				H/L수준 압축간의 선택빈도				완성된	
합의	특이	일관	H 합의	L 합의	L 특이	H 특이	H 일관	일관	함축형태 <sup>a</sup>
H	H	-	58(.97) <sup>b</sup>	> 2(.03)***	4(.07)	< 56(.93)***	46(.77)	> 14(.23)***	HHH
H	L	-	57(.95)	> 3(.05)***	57(.95)	> 3(.05)***	56(.93)	> 4(.07)***	HLH
L	H	-	9(.15)	< 51(.85)***	10(.17)	< 50(.83)***	23(.38)	= 37(.62)	LH-
L	L	-	6(.10)	< 54(.90)***	60(1.0)	> 0(.00)***	49(.82)	> 11(.18)***	LLH
H	-	H	56(.93)	> 4(.07)***	29(.48)	= 31(.52)	57(.95)	> 3(.05)***	H-H
H	-	L	6(.10)	> 4(.07)***	21(.35)	< 39(.65)*	7(.12)	< 53(.88)***	HHL
L	-	H	18(.30)	< 54(.90)***	45(.75)	> 15(.25)***	59(.98)	> 1(.02)***	LLH
L	-	L	18(.30)	< 42(.70)***	30(.50)	= 30(.50)	6(.10)	< 54(.90)***	L-L
-	H	H	44(.73)	> 16(.27)***	2(.03)	< 58(.97)***	55(.92)	> 5(.08)***	HHH
-	H	L	35(.58)	= 25(.42)	7(.12)	< 53(.88)***	13(.22)	< 47(.78)***	-HL
-	L	H	29(.48)	= 31(.52)	59(.98)	> 1(.02)***	59(.98)	> 1(.02)***	-LH
-	L	L	29(.48)	= 31(.52)	54(.90)	> 6(.10)***	12(.20)	< 48(.80)***	-LL
평균 빈도			33.58	26.42	31.50	28.50	36.83	23.17	
			(.56)	(.44)	31.50	(.48)	(.61)	(.39)	

H=high, L=low <sup>a</sup> 밑줄친 정보는 주어진 정보. <sup>b</sup> 수치는 선택 빈도. 괄호 안의 수치는 선택 백분율. 부등호/등호 표시는 선택의 방향을 나타냄. \* $p < .01$ . \*\*\* $p < .001$ . 양방 검증.

(1,  $N=60$ )=17.07,  $p < .001$ ; HL-조건:  $\chi^2(2, N=60)$ =45.07,  $p < .001$ ; LL-조건:  $\chi^2(1, N=60)$ =24.07,  $p < .001$ ], (2) 특이성 함축에서는 低합의성(“그 사람만”) 정보와 高일관성(“그전에도 늘”) 정보의 조합이 高특이성(“모든 자극에”)쪽을 강하게 선호했으며( $\chi^2(1, N=60)$ =15.00,  $p < .05$ ). 그리고 (3) 합의성 함축에서는 高특이성(“그 자극에만”)정보와 高일관성(“그전에도 늘”)정보의 조합이 低합의성보다 高합의성(“모든 사람이”)쪽을 강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1, N=60)$ =13.07,  $p < .001$ ). 이런 결과들은 실험 I에서 하나하나의 정보가 함축했던 방향의 합과 거의 일치한다.

표 4의 결과에서 주어진 정보 자체에 대한 함축 결과를 제외하고 주어진 정보 이외의 함축 결과 중에서 의의있는 것만을 뽑아 “2정보 조합→함축”관계의 도식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3이다. 그림 3의 결과는 2정보조합이 지니는 함축 결과이므로, 화살표 모양이 같은 것끼리 짝을 이루어 나머지 한 정보를 함축하는 것으로 그렸다.

그림 3에서 드러나는 특징들을 살펴 보면, (1) 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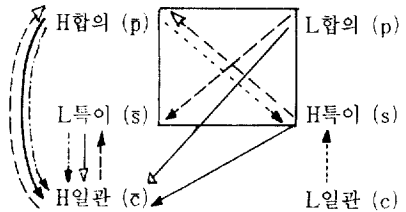


그림 3. 高低수준·함축간 선택 빈도로 본 “2정보조합→함축”관계의 도식. (같은 모양의 화살표끼리 짝이 되어 나머지 한 정보를 함축. “L일관+H합의→H특이”는  $p < .5$ ; 나머지 함축관계들은  $p < .001$ . 다른 부호들은 그림 1의 실험과 같음.)

모든 정보조건에서 低일관성보다 高특이성(“그 자극에만”)을 약하게 함축할 뿐( $p < .05$ ) 다른 정보들을 거의 함축하지 않고 따로 격리되어 있다. 그리고 (3) 자극귀인을 일으키는 高특이성(“그 자극에만”) 정보와 행위자 귀인을 부정하는 高합의성(“모든 사람이”)정보간, 그리고 행위자 귀인을 일으키는 低합의성(“그 사람만”) 정보와 자극귀인을 부정하는 低특이성(“모든 자극에”)정보간에는 함축 관계가 나타나지만, 低합의성정보(행위

자귀인 지시)와 高특이성 정보(자귀인 지시), 그리고 低특이성 정보(자귀인의 부정 지시)와 高합의성 정보(행위자귀인의 부정 지시)간을 연결하는 함축은 나타나지 않는다. 즉, 합의성 정보와 특이성 정보간에 X자형 함축교차 형태가 드러난다. 이런 특징들은 실험 I(단일정보로 부터의 함축 연구)의 결과에서 드러났던 특징들과 같은데, 이에 대한 논의는 종속변인 2(함축 강도)에 대한 결과까지 검토한 다음으로 미루려고 한다.

### 개별함축의 정도 평정치

먼저 질문지 양식과 문항 제시 순서가 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12×6(질문지 양식×6개의 함축 척도) 변량분석과 5×6(문항 제시 순서×6개의 함축 척도) 변량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의의있게 나오지 않았으므로[질문지 양식:  $F(55, 4248) < 1$ ; 문항 제시 순서:  $F(20, 4290) < 1$ ], 함축 정도가 질문지 양식이나 문항 제시 순서에 따라서는 체계적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다.

이어 2정보조합 조건별로 3개의 함축 차원(合意性, 特異性, 및 一貫性 함축) 각각에 대해 高수준과 低수준의 함축 내용 중 어느 쪽이 더 강하게 함축되었는지를

분석했다. 2정보조합 조건별 함축 정도의 평균치들과 각 정보조합 조건 안에서 서로 반대되는 함축들(예: 高합의성 함축과 低합의성 함축)간의 함축정도 차를  $t$  검증한 결과가 표 5에 나와 있다.

표 5에서도 2정보조합 조건 12개 모두에서 주어진 정보 자체에 대한 함축 내용을 피험자들이 잘 수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사각 둘레로 테두리 치지 않은 결과들 참조). 그리고 주어진 정보 이외의 정보에 대한 함축 방향도 종속변인 1(高低수준 함축간 선택빈도)의 결과와 잘 일치한다(사각둘레로 테두리친 부분 참조). 즉, 표 5에서도 표 4에서와 마찬가지로 (1) 高합의성 정보와 高특이성 정보의 조합(HH-조건), 高합의성 정보와 低특이성 정보의 조합(HL-조건), 그리고 低합의성 정보와 低특이성 정보의 조합(LL-조건)이 모두 低일관성보다 高일관성("그전에도 늘")쪽을 더 강하게 함축했고( $t(59)=4.80, 10.76, 8.56, ps < .001$ ), (2) 低합의성 정보와 高일관성 정보의 조합(L-H조건)에서 低특이성("모든 자극에")쪽의 함축이 나왔으며 ( $t(59)=5.59, p < .001$ ), (3) 高특이성 정보와 高일관성 정보의 조합(HH조건)에서 高합의성("모든 사람이")쪽의 함축이 나왔다( $t(59)=4.95, p < .001$ ). 두 종속변인 간에 한 가지 달랐

표 5. 2 정보조합에 대한 합의성 특이성 및 일관성의 高低 함축정도 평정치 차의  $t$  검증 결과

주어진 정보				함 축 정 도				완성된 함축형태 <sup>a</sup>	
합의	특이	일관	H 합의	L 합의	L 특이	H 특이	H 일관		L 일관
H	H	-	6.20 <sup>b</sup>	> 1.78***	2.07	< 5.77***	5.12	> 2.97***	HHH
H	L	-	6.07	> 2.10***	6.02	> 1.90***	5.72	> 2.13***	HLH
L	H	-	2.30	< 5.60***	2.47	< 5.35***	3.75	= 4.13	LH-
L	L	-	2.22	< 5.58***	6.18	> 1.95***	5.40	> 2.45***	LLH
H	-	H	5.87	> 2.00***	3.92	= 3.77	6.15	> 1.90***	H-H
H	-	L	5.77	> 2.13***	3.57	= 4.02	2.40	< 5.33***	H-L
L	-	H	2.32	< 5.53***	5.12	> 2.93***	6.25	> 1.77***	LLH
L	-	L	3.07	< 4.62**	4.13	= 3.65	2.30	< 5.48***	L-L
-	H	H	4.90	> 2.90***	2.03	< 5.35***	6.00	> 2.13***	HHH
-	H	L	4.23	= 3.53	2.45	< 4.93***	2.65	< 5.08***	-HL
-	L	H	3.87	= 3.55	6.08	> 1.80***	6.15	> 1.67***	-LH
-	L	L	3.83	= 3.92	5.90	> 1.77***	2.73	< 4.82***	-LL
평	균		4.22	3.60	4.16	3.60	4.55	3.32	

H=high, L=low. <sup>a</sup> 밑줄친 정보는 주어진 정보. <sup>b</sup> 점수는 單極 척도(7점 척도)에서의 함축정도 평정치 평균임. 높은 수치일수록 함축정도가 높은 것을 뜻함. 부등호/등호 표시는 H/L수준 함축 중 어느쪽이 강한지를 나타냄.

\*\* $p < .01$ . \*\*\* $p < .001$ . 양방 검증.

던 점은 “高합의정보+低일관정보”의 조합(H-L조건)이 표 4(중속변인1)에서는 약간 고특이성(“그 자극에만”)쪽의 함축을 낳았으나( $p<.05$ ) 표 5에서는 이 정보조합의 고특이성 함축 정도와 低특이성 함축 정도간에 의의 있는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다( $t(59)=1.06, p>.05$ ).

표 5는 2정보조합 조건별 함축 정도 결과이므로, 여기서 짝지어진 두 정보중 어느 정보가 주어진 정보 이외의 나머지 한 차원의 정보에 대한 함축 정도에 더 영향력을 발휘했는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표 5의 자료를 주어진 정보조합의 종류별로 분리해서(즉, 12가지의 2정보조합 조건들을 (1) 합의성 정보와 특이성 정보의 조합을 준 조건, (2) 합의성 정보와 일관성 정보의 조합을 준 조건, 그리고 (3) 특이성 정보와 일관성 정보의 조합은 준 조건들별로 나누어), 각각의 정보 조(組)를 2×2설계처럼 분석했다.

그 결과 합의성 정보와 특이성 정보의 조합에 따른 일관성 함축 정도에 대한 변량분석(2×2)에서 합의정보와 특이정보의 주효과가 각각 유의했다(합의정보 효과 : 高일관성 함축 정도에 대해, 그리고 低일관성 함축 정도에 대해 각각 1% 수준에서 유의했음( $F(1,59)=10.99, p<.01; F(1,59)=9.75, p<.01$ )). 특이정보 효과 : 高일관성 함축 정도에 대해, 그리고 低일관성 함축 정도에 대해 각각 0.1% 수준에서 유의했음( $F(2,59)=30.11, p<.001; F(1,59)=33.82, p<.001$ )). 그러므로 일관성 함축 정도 평정에 합의성 정보의 수준과 특이성 정보의 수준이 모두 기여하나, 특히 특이정보 수준의 효과가 더 큼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자극”에 대한 정보를 주는 특이성 정보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주는 일관성 정보가 모두 행위자의 “외부”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합의정보 수준과 특이정보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도 어느 정도 유의하게 나왔는데(高일관성 함축 정도에 대해  $F(1,59)=7.79, p<.01$ ; 低일관성 함축 정도에 대해  $F(1,59)=5.87, p<.05$ ), 이것은 低합의성 정보(“그 사람만”)와 高특이성 정보(“그 자극에만”)를 조합시키면 특수성(specificity)이 높아져서 보통때는 잘 일어나던 高일관성(“그전에도 늘”)쪽의 함축이 약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합의성 정보와 일관성 정보의 조합(高低합의성×高低일관성)에 따른 특이성 함축 정도에 대한 2×2변량분석 결과, 低특이성 함축 평정에서도 합의정보 수준과

일고나정보 수준의 주효과가 유의했고(각각  $F(1,59)=14.67, p<.001; F(1,59)=17.42, p<.001$ ), 고특이성 함축 평정에서도 합의정보 수준과 일관정보 수준의 주효과가 유의했다(각각  $F(1,59)=7.19, p<.01; F(1,59)=5.38, p<.05$ ). 그러므로 특이성 함축강도 평정에 합의성 정보의 수준과 일관성 정보의 수준이 모두 기여했음을 시사한다.

특이성 정보와 일관성 정보의 조합에 따른 합의성 함축 강도에 대한 변량분석에서도 주어진 두 정보의 수준(高 또는 低)의 주효과가 각각 高합의성 함축에서도 유의했고( $F(1,59)=7.95, p<.01; F(1,59)=4.04, p<.05$ ), 또 각각 低합의성 함축에서도 유의했다( $F(1,59)=4.43, p<.05; F(1,59)=9.26, p<.01$ ). 이런 결과에 비추어 특이성 정보와 일관성 정보가 각각 개별적으로 합의성 함축에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다.

표 5의 함축 정도(중속변인 2)의 결과를 高低함축간 선택(중속변인 1)의 결과에서처럼 “2정보조합→함축”관계의 도식으로 그려보면 그림 4와 같다. 여기서도 그림 3에서와 마찬가지로 같은 모양의 화살표끼리 한 짝이 되어 나머지 한 정보를 함축하는 것으로 그렸는데, 변량분석 결과에서 하나하나의 정보가 모두 함축에 영향을 주었음이 밝혀졌으므로 화살표 하나하나가 모두 의미있다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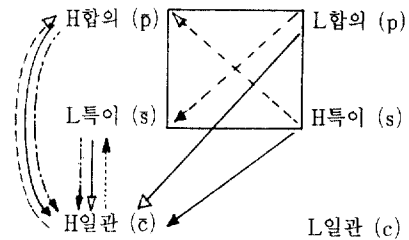


그림 4. 高수준 함축 정도 및 低수준 함축 정도 평정 간 차이로 본 “2정보조합→함축”관계의 도식.

그림 4를 그림 3과 비교해 보면, 그림 3에서는 “高합의+低일관”정보의 조합이 高특이성을 약하게 함축했었으나(5% 수준) 그림 4에서는 이 함축이 없어졌다는 점만 제외하고는 그림 3과 그림 4가 완전히 일치한다. 이 두 그림에서 드러나는 특징들은 (1) 개개 정보로 볼 때 低일관성 정보 이외의 모든 정보조건이 高일관성(“그전에도 늘”)의 함축에 관련되어 있으며, 다시 말해서 高

일관성이 가장 자주 함축되며, (2) 低일관성 정보는 다른 정보들로부터 함축을 받지 않음은 물론 다른 정보들을 함축하지도 않고(하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따로 격리되어 있으며, (3) 자극귀인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高특이성 정보는 행위자귀인을 방해하는 高합의성을 함축하고, 행위자귀인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低합의성 정보는 자극귀인을 방해하는 低특이성을 함축하나, 高특이(자극귀인)와 低합의(행위자귀인)간을, 그리고 高합의(행위자귀인의 부정)와 低특이(자극귀인의 부정)간을 연결하는 함축은 전혀 없다는 점["X자형 함축교차"]이다. 이런 특징들은 단일정보를 토대로 함축을 알아본 실험 I 과 2개의 정보를 토대로 함축을 알아본 실험 II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된 특징들이다.

여기서도 실험 I에서와 같은 방법(표 3 참조)으로 함축정보들의 강도를 주어진 정보들의 자체함축 강도와 비교해 본 결과, 高합의정보와 低특이정보의 조합이 함축하는 高일관정보의 강도( $M=5.72$ )는 주어진 두 정보의 자체함축 강도들( $M_s=6.07, 6.02$ )과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Duncan's Multiple Range 검증  $\alpha=.01$ ), 다른 함축정보들[高합의(6.20)+高특이(5.77)→高일관(5.12), 低합의(5.58)+低특이(6.18)→高일관(5.40), 低합의(5.53)+高일관(6.25)→低특이(5.12), 그리고 高특이(5.35)+高일관(6.00)→高합의(4.90)]도 주어진 두 정보들 중 어느 하나와는 함축강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DMR 검증,  $\alpha=.01$ ). 그러므로, 두 차원의 정보를 받고 다른 한 차원의 정보를 추리해 낼 때, 주어진 두 차원 중 적어도 하나와는 비슷한(유의한 차이가 없는) 강도로 함축정도를 추리해 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 전체논의

본 연구는 Kelley(1967)와 McArthur(1972)가 서로 독립적인(직교하는)차원이라고 생각했던 合意性, 特異性, 및 一貫性 정보들이 서로를 함축한다는 命題를 증명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합의성, 특이성, 및 일관성 정보 중 하나 또는 두 개의 정보만을 줄 때 나머지 정보에 대한 함축이 어떤 방향(高수준 또는 低수준)으로 일어나는지를, 그리고 그 함축 관계에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를 알아 보려 했다. 이런 목적을 위해 단일정보 조건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실험 I 과 2정보조합 조

건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실험 II를 실시했다.

실험 I 과 실험 II의 결과는 종속변인 1(합의성, 특이성, 및 일관성차원 각각에서의 高低수준 함축간 선택 빈도)과 종속변인2(개별 함축의 정도 평정치)의 자료 모두에서 아주 잘 일치했다. 본 연구의 출발점과 결부시켜 이 두 실험에서 내릴 수 있는 중요한 결론은 Kelley가 말하는 3가지의 정보(합의성 정보, 특이성 정보, 및 일관성 정보)중 하나 또는 둘만 있어도 피험자들이 주어진 정보 자체의 뜻과 함께 나머지 정보들을 추리해 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합의성, 특이성, 및 일관성 정보는 Kelley(1967)의 입방체 귀인이론에서처럼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정보(information) 공간에서는 서로 독립적인 차원을 이룰 수 있지만, "함축(implication)"이라는 공간에서는 이들 정보가 상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의 결과에서 정보들간의 함축관계가 아주 체계적인 규칙성을 보였는데, 두 실험에서 일관성있게 드러난 "정보→함축"관계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은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1) 행위자귀인을 지시하는 低합의성("그 사람만") 정보는 자극귀인을 방해하는 低특이성("모든 자극에") 정보를 함축하고 자극귀인을 지시하는 高특이성("그 자극에만") 정보는 행위자귀인을 방해하는 高합의성("모든 사람이") 정보를 함축하지만, 高특이성 정보(자극귀인 지시)와 低합의성 정보(행위자귀인 지시) 간에, 그리고 高합의성 정보(행위자 귀인의 부정 지시)와 低특이성 정보(자극귀인의 부정지시)간에는 전혀 함축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X자형 함축교차), 둘째로 (2) 상황귀인을 일으키는 低일관성("그때만") 정보는 다른 정보들로부터 함축을 받는 일도 없고 다른 정보들을 함축하는 일도 거의 없이 따로 격리되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 低일관성 정보 이외의 거의 모든 정보조건에서 高일관성("그 전에도 늘")쪽의 함축이 나왔다.

이와 같은 3가지의 특징들 중 첫번째 특징, 즉, 합의성 정보와 특이성 정보간의 X자형 함축교차 형태는 車載浩와 羅恩暎(1986)이 처음 제안한 T字型 歸因空間모델(그림 5)의 수평축을 강력히 지지하는 결과이다. 왜냐하면, T형 귀인모델의 기본 가정 중 하나가 행위자귀인과 자극귀인은 반대관계에 있다는 것인데(서론 부분 참조), 본 연구의 결과에서 "행위자귀인을 지시하는 低합의정보가 자극귀인의 부정을 지시하는 低특이정보

를 함축해 함께 한 極을 형성하고 “자극귀인을 지시하는 고특이정보가 행위자귀인의 부정을 지시하는 고향의 정보를” 함축해 들어 함께 다른 極을 형성함이 아주 뚜렷하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적어도 함축공간에서는 Kelley(1967)의 입방체 모형에서 독립차원이었던 합의성 정보 차원과 특이성 정보차원이 단일차원으로 결합됨을 의미한다. 귀인공간에서 말하면 행위자귀인과 자극귀인이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보는 T형 귀인모델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더구나 중요한 함축정보의 강도가 주어진 정보의 자체함축 강도와 의의있는 차이가 없다는 추가분석의 결과는 이런 결론에 더욱 확신을 갖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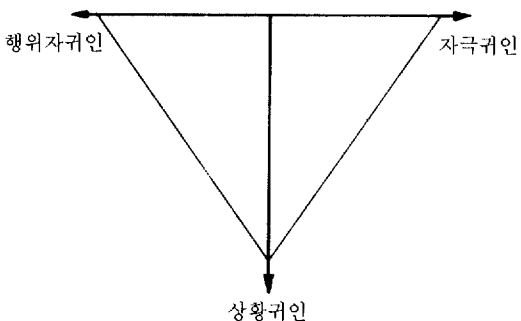


그림 5. T자형을 축으로 하는 역삼각형 귀인공간 모델 (車載浩·羅恩映, 1986, p.33).

본 연구의 결과들에서 나타난 “정보→함축”관계의 두 번째 특징은 상황귀인을 지시하는 低일관성 정보가 다른 정보들과의 연결이 없이 따로 떨어져 있다는 것인데, 이런 사실은 T형 귀인모델의 수직축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입증한다. T형 모델의 두 번째 가정은 행위자귀인이나 자극귀인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高일관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低일관성일 때는 바로 상황귀인이 일어난다는 것이다(서론부분 참조). 이것을 달리 말하면 低일관성일 때는 행위자귀인이나 자극귀인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의 결과에서 상황귀인을 지시하는 低일관성 정보가 행위자귀인이나 자극귀인으로 연결되는 정보들을 함축하거나 그들 정보에 의해 함축되지도 않았다는 것은 이 수직차원이 수평차원과 직각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암시하고 따라서 T형 모델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험 II의 두 번째 종속변인의 변량분석 결과에서 보았듯이, 특이성

정보(자극 차원)의 수준이 합의성 정보(행위자 차원)의 수준보다 일관성(상황 차원) 함축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은 T형 귀인모델의 수직축(즉, 상황귀인 축)이 행위자귀인보다 자극귀인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또한 과거 귀인차원으로 널리 알려진 内部-外部 귀인 차원이 사실은 행위자-자극 차원과 행위자-상황 차원을 혼동하고 있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함축관계의 세 번째 특징은 低일관성 정보 이외의 거의 모든 정보가 高일관성 함축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南基德(1986)의 연구 가설 중 하나인 “實體(행위자와 자극)의 성질의 항상성 가정 가설”<sup>4)</sup>에서 도출될 수 있는 “實體들간 관계의 高일관성(high consistency) 가정 가설”을 지지한다. 즉, 低일관성 정보가 명백히 주어지지 않는 한 사람들은 대체로 일관성의 基底線(baseline)을 높게 가정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연구에서 밝혀졌다. 사람들이 만약 실제(행위자와 자극)의 성질이 어느 정도는 지속적인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다면, 별다른 단서가 없는 한 “그 행위자와 그 자극이 만나면 대체로 늘 그런 반응(행동 또는 효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가정할 것이다. 高일관성은 상황귀인에 불리한 조건이므로, 이 가설을 T형 귀인모델과 결부시키면 사람들은 보통때는 상황으로 원인을 돌리기보다 실제, 즉 상황에 비해 안정된 속성을 지닌 행위자나 자극 쪽으로 귀인을 하려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가설(실체들간 관계의 高일관성 가정 가설)은 주로 “관찰자”의 귀인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며 행위자 자신의 행동에 대한 귀인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Jones & Nisbett, 1971 참조). 왜냐하면, 행위자가 어떤 자극에 대한 자기 자신의 행동을 보고 귀인할 때는 그 자극에 대한 자신의 과거 행동을 알고 있으므로(즉,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일관성 정보를 이미 갖고 있으므로) 무턱대고 高일관성을 가정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4) 실체의 성질의 항상성(constancy) 가정 가설: “사람들은 실제(행위자와 자극)의 성질이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으리라는 신념을 기본적인 가정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다. 즉, 사람들은 실체의 성질이 어느정도 지속적이고 불변적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을 것이다”(南基德, 1986, p. 16).

이번 연구의 결과가 필자들의 선행 연구(車·羅, 1986)의 결과와 부분적으로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1) 지난번 연구에서는 특수정보[“그 사람만(低합의)”, “그 자극에만(低특이)”, 또는 “그때만(低일관)”)가 일반정보[“다른 사람들도(高합의)”, (2) 지난번 연구에서는 모든 합측관계가 비호환적(nonreciprocal) 또는 一方的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호환적(reciprocal) 또는 兩方的인 합측관계도 보였다(예: 高합의→高일관, 低특이→高일관). 이와 같은 차이는 두 연구의 합측 측정 방법상의 차이 그리고 이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연구 간의 방법론상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면, 예를 들어 車載浩와 羅恩暎(1986)의 연구에서는 低특이성 정보가 低합의성 정보를 함축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서론부분 참조), 이런 결과는 低특이성 정보를 주고 低합의성의 함측 여부를 직접 물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低특이성 정보를 주고 高합의성의 함측 여부를 물었을 때 중간점(neutral point)보다 유의하게 낮은 쪽으로 평정이 나와 이를 低합의성을 함측하는 것으로 해석했던 데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低특이정보가 高합의성을 함측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低합의성을 함측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논리에서 보면 이전의 연구결과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高低수준의 함측을 각각 따로 측정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低특이정보를 주고 高합의성 함측 뿐 아니라 低합의성 함측에 대한 개연성 평정치도 함께 얻어서 高低합의성 함측의 정도를 비교해 본 결과, 低합의성 함측 내용도 어느 정도는 그럴듯하다고 나왔지만 高합의성 함측 강도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低특이성 정보가 低합의성 함측을 낳는다고 말할 수 없고 低특이성정보의 합의성 함측 방향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이 된다.

여기서 지적할만한 사실은 스키마에 근거한 Orvis, Cunningham, 및 Kelley(1975)의 예언(본 논문의 서론부분 참조)이 양극척도를 사용해서 함측을 측정하고 해석한 필자들의 이전 연구(車·羅, 1986)에서는 대체로 지지를 받고 있으나, 서로 대비되는 단극척도(unipolar scale) 두 개씩을 써서 상반되는 두 함측 간의 강도 차를 근거로 함측을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처럼 상반함측을 재는 2개의 單極척도상에서의 함측 평정차로 함측을 추정하는 것이 Orvis등(1975)의 방법이나 車載浩와 羅恩暎(1986)의 兩極척도에 의한 방법보다 더 정확한 것이라면 Orvis등의 스키마 가정은 지지를 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 귀인정보들이 다른 정보를 함측한다는 사실, 그리고 T모형을 지지하는 형태로 함측관계가 드러난다는 사실은 필자들의 두 연구 모두에서 지지되고 있다. 두 연구에 사용된 함측 평정 척도가 달라서 해석상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연구의 함측 결과들이 모두 T형 귀인모형을 지지하는 형태로 나왔다는 점은 T모델의 굳건함(robustness)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Kelley(1967)의 3차원(행위자, 자극, 그리고 상황 차원) 중 행위자 차원과 자극 차원을 합해서 귀인 차원을 2차원으로 축소시킨 T형(또는 역삼각형) 귀인 공간 모델이나, 사람들이 보통때는 高일관성을 가정하여 T형 모델의 수평축 위에서만 귀인(행위자귀인 또는 자극귀인)을 할 것이라는 생각은 인지적 경제성(cognitive economy)의 원리에 잘 부합되는 것이다. 즉, 사람들이 물론 3차원 또는 그 이상의 思考를 할 수 있지만, 일상 생활에서 어떤 행동의 원인을 찾을 때는 Kelley의 입방체가 모두 채워지기를 기다리지도 않을 뿐더러, 몇 개의 정보만으로도 가능한 한 인지적인 노력을 절약하려는 편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직접 귀인을 종속변인으로 다루지 않았으나 사람들이 합의성, 특이성, 및 일관성 차원의 정보들을 모두 갖추지 않아도 나머지 정보들의 뜻까지 추리해 낼 수 있음을 증명했고 여기서 얻은 함측과계를 토대로 하여 간접적으로 T형 귀인공간 모델의 타당성을 지지하는 자료를 얻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찾아 볼 수 있다.

본 연구나 車載浩와 羅恩暎(1986)의 연구에서는 모두 함측 또는 귀인에 미치는 “정보(단일정보 또는 2정보조합)”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McArthur(1972)의 4가지 동사범주(정동, 성취, 의견, 및 행위)의 효과를 합(pooling)한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행동의 종류(행동을 문장으로 표현하면 행동의 종류는 동사의 종류로 표현된다)에 따라 귀인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연구들이 있고(예: McArthur, 1972; Zuckerman, 1978), 귀인의 방향이 달라진다면 귀인에 이용되는 정보들의 함측 패턴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로서 동사 범주



(즉, 행동의 종류)에 따른 귀인정보의 함축 패턴을 연구하여 어떤 범주일 때 T형 모델이 더 잘 들어맞고 어떤 범주일 때 잘 맞지 않는지를 가려내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 참고문헌

羅恩暎(1987). 함축 차원으로 본 합의성, 특이성 및 일관성 정보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南基德(1986). 인과귀인에서의 정보의 위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車載浩·羅恩暎(1986). 귀인정보의 함축정보 연구: 합의성, 특이성, 및 일관성 정보간의 상호 함축 관계. *社會心理學 研究*, 3(1), 17-36.  
 Hansen, R. D.(1980). Commonsense attribu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6), 996-1009.  
 Heider, F.(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Wiley.  
 Jones E. E., and Nisbett, R. E.(1972). The actor and the observer: Divergent perceptions of the causes of behavior. In E. E. Jones, D. E. Kanouse, H. H. Kelley, R. E. Nisbett, S. Valins, and B. Wei-

ner(Eds.), *Attribution: Perceiving the causes of behavior*(pp. 79-94). Morristown, N. J.: General Learning Press.

Kelley, H. H.(1967). Attribution theory in social psychology.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5, 192-238.  
 Kelley, H. H., and Michela, J. L.(1980). Attribution theory and research.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1, 457-501.  
 McArthur, L. A.(1972). The how and what of why: Some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causal attribu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2(2), 171-193.  
 Orvis, B. R., Cunningham, J. D., and Kelley, H. H.(1975). A closer examination of causal inference: The roles of consensus, distinctiveness, and consistency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4), 605-616.  
 Zuckerman, M.(1978). Actions and occurrences in Kelley's cub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6), 647-656.

원고 초본 접수: 1988. 3. 4  
 최종 수정본 접수: 1988. 7. 20

**Implicational Relationships among Consensus, Distinctiveness, and Consistency Information as Measured by Separate Unipolar Scales of Two Opposite Implications**

Eun-Yeong Na and Jae-Ho Cha

Seoul National University

Two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test the idea that Kelley's(1967) three types of attributional information(consensus, distinctiveness, and consistency information) can be partially implied by one or the other. Sixty subjects received one type of information(Experiment 1), and another 60 subjects received two types of information(Experiment 2) and were asked to infer the remaining information by (1)choosing between the two opposite implications(e.g., high and low consensus implications), on each of the three dimensions, and (2)rating the strength of each implication on 7-point unipolar scales. As expected, subjects were able to fill in the missing information based on the given information. In addition, the pattern of implicational relationships found among consensus, distinctiveness, and consistency information indirectly supported the T-shape attribution space model proposed by Cha and Na(1986), but did not support the schema-based predictions made by Orvis, Cunningham, and Kelley(1975). It was also demonstrated that people would assume a higher baseline for consistency information than for consensus or distinctiveness information. The analysis suggested that the traditional internal-external attribution distinction may have confounded two different attribution choices, one between person and stimulus and another between person and circumstance.